

올해 4월 과학의 달에 만나는 <이 달의 문화인물>로는 지리학자 이중환(李重煥)이 뽑혀 있다. 아마 여름에 서울에서 있을 세계 지리학회 회의를 기념하는 뜻에서라고 생각된다. 어느 지리학자는 이중환을 우리나라 지리학의 중시조(中始祖)라고 꼽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근대 지리학이야 20세기 들어와 시작되었다고 하겠지만, 근대 이전의 우리 전통

기업의 사무실에 대한 풍수지리 진단을 하고 있기도 하다. 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느 중국계 풍수가는 백악관의 사무실 집기 배치가 잘못되어 대통령 클린턴에 대한 추문과 말썽이 꼬리를 문다면, 책상 등의 배치를 다시 하라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2월 초 신문에 그림까지 곁들여 나기도 했다. 풍수지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제법 인기를 얻고 있는 신종 전통과학의 한 분야라 하겠다. 이렇게 풍수지리가 다시 일세를 풍미하게 된다면, 도선도 지리학의 아버지로 높여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擇里志」낸 지리학의 中始祖 李重煥(1690~1756)

과학의 달,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조선조의 지리학자 李重煥은 우리나라 지리학의 中始祖.

그의 대표작 택리지(擇里志)는 우리의 전통적 풍수지리학을 반쯤 섞고 거기에 근대 지리학의 성격을 가미했다. 이 택리지는 사대부가 어디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책으로 지리·생리·인심·산수 등 4가지로 나눠 설명했는데 이 책은 1750년쯤 쓴 것으로 보인다.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풍수지리학의 선구자 한 사람이 바로 1997년 4월 <이달의 문화인물>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이다. 그의 대표작인 <택리지>(擇里志)는 꼭 풍수지리학의 저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근대적 지리학을 보여주는 책도 아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 풍수지리학을 반쯤 섞고, 거기에 근대 지리학의 성격을 상당히 가미한 그런 내용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중환의 <택리지>를 더욱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지리학에서 그 조상을 찾자면 이 중환이야말로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신라말의 도선(道詵)을 한국 지리학의 아버지 쪽으로 여길지도 모르지만, 그의 경우는 너무 풍수지리 냄새가 진해서 마땅치 않게 여기는 수가 있을 것 같다.

최근 말썽이 난 어느 재벌 사업가는 그의 사무실로 종로에 있는 허름한 곳을 즐겨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이 풍수지리적으로 좋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어느 주간지에서는 매주일마다 대

본관이 여주(驪州)인 이중환은 자를 휘조(輝祖), 호를 청담(淸潭) 또는 청화산인(靑華山人)이라 했다. 아버지는 참판 이진휴(李震休)였고, 5대조는 찬성 이상의(李尙毅)라고 한다. 가족 관

朴星來

(한국외대 사학과교수 · 부총장 / 과학사)

계로 말하자면 그는 또한 유명한 실학자 이익(李瀼, 1681~1763)의 재종손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익은 <택리지>에 서문을 써주기도 했다.

1713년(숙종 16)의 문과 증광별시에 합격한 그는 김천 찰방을 거쳐 병조 좌랑과 병조 정랑 등을 거치면서 관직에 있었다. 그러던 그는 당대의 풍운아 목호룡(睦虎龍, 1684~1724)과의 관련 때문에 출세의 문턱에서 커다란 시련을 맞게 된다. 남인으로서 서얼 출신이었던 목호룡은 당시 왕실의 어느 집에 문인으로 드나들면서 풍수지리를 배워 지관(地官)으로 행세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숙종 말기에서 경종을 거쳐 영조로 이어지는 몇 년동안 조선 왕조의 당파 싸움은 극도에 달하고 있었는데, 주로 노론과 소론 사이의 다툼이었다. 1722년(경종 2) 3월 목호룡은 그때까지 주로 노론쪽에 서있던 그의 입장을 소론쪽으로 바꿔 노론을 공격하는 중요한 사건을 일으켰다. 노론 일파가 경종 임금을 해치고 이미 왕세제(王世弟)로 임명되어 있던 연잉군(즉 뒤의 英祖)을 왕위에 앉히려 한다는 밀고였다.

辛壬士禍때 외딴 섬으로 유배

이 사건으로 당시 노론의 4대 재상이 사형당했고, 처벌받은 사람이 60명을 넘었다. 이를 역사에서는 신임사화(辛壬士禍)라 부른다. 신축년과 임인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 목호룡이 바로 이중환의 장인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실하게 증명해 내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경종실록> <영조실록>에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보통 이상인 것은 족히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허약했던 경종은 1744년 8월 승하하고, 그의 뒤를 이어 왕세제 연잉군이 왕위에 올라갔다. 경종과 마찬가지로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었으나, 경종이 장희빈의 아들인 것과 달리 영조는 그의 이복 아우로 되어 있다. 경종은 아들 딸을 낳아 보지 못한 채 죽고, 영조가 그의 뒤를 이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즉위는 바로 노론의 권토중래(捲土重來)를 의미했다. 노론이 집권하면서 목호룡의 밀고사건은 날조였다고 판단되었고, 당연히 목호룡은 당장 문초받다가 옥중에서 맞아 죽었고, 그 시체를 당고개에서 다시 효수했을 정도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 문초에서 굴복하지 않은 이중환은 사형을 받을 뻔한 것으로 보이지만, 1년 뒤인 1725년 12월 외딴 섬으로 유배 보낸 것으로 <영조실록>은 전하고 있다. 그가 어떤 외딴 섬으로 끌려 갔던 것인지는 아직 알아내지 못한 채이다. 또 언제 그가 해방되어 나왔던가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중환의 대표작 <택리지>(擇里志)는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태어난 작품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풍수지리에 관한 책이 제법 많다. 하지만 <택리지>는 내놓고 풍수지리를 설명한 책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풍수지리적인 내용을 제외한 요즘 지리학 같은

저술이라는 뜻은 아니다. <택리지>는 두 부분으로 꾸며져 있는데, 첫 부분은 “8도(八道)총론”이라 하여 전국을 8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 각 지역에 대한 상세한 지리적 특성을 설명한 내용이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 “복거(卜居)총론”이라 하여, 좋은 곳을 골라 사는 조건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사대부들의 살 곳 상세히 설명

“팔도총론” 앞에는 간단하게 ‘사민’(四民)에 대한 설명을 넣어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 사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서론으로 넣어 두었다. 원래 옛날에는 사(士)또는 사대부 계층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사대부 계층이 생겨나서는 독서, 학문, 예술을 하는 사대부가 가장 귀한 것이어서 사대부들이 사는 곳도 골라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택리지>란 바로 사대부가 어디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책이라는 뜻이다. ‘팔도총론’은 평안도에서 시작하여, 함경, 황해, 강원, 경상, 전라, 충청, 경기도를 그 차례로 설명한다. 각 도의 특징과 각 도의 주요 지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데, 대개 끝에는 총괄적인 논평도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함경, 평안도에 대해서는 사람 살 곳이 못된다고 단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라 풍속이 그 곳 사람들과는 상대하지 않고, 사대부가 가서 살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경상, 전라도에 대해서는 거

리가 너무 멀어서 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살만한 곳을 고르는 문제에 대한 “복거총론” 부분에서는 사람의 살만한 곳의 조건으로 4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 등이 그것이라는 주장이다. 처음 지리부분은 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풍수지리에 속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감정에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을 삼가라는 말은 지금도 똑같은 조건이라 할 만하다. 예를 들어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며 북두칠성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곳이라면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 쉽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도 이치에 맞는 말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생리는 요즘 표현으로 경제적 조건을 말하는데, 아주 잘 설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농업이 주 산업이었으므로 농업생산력을 강조하면서도 교통의 편리함의 중요성을 들어 경제 조건의 중요한 부분으로 꼽고 있다. 교통 조건으로는 말은 수레만 못하고, 수레는 배만 못하다고 쓰여있다.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 준다. 지금같으면 반드시 물이 육지보다 교통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중환이 살던 당시로서는 강보다는 바다가 훨씬 교통에 편리하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택리지>는 바다 교통의 상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전

국 지역별로 설명하고 있다. 또 바로 이런 점을 잘 활용하여 해외 무역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서울, 개성, 평양, 안주에 제법 많이 있음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처벌받은 신임사화도 소개

세번째로 든 인심이란 각 지방마다 틀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거론한 것이다. 이중환은 이 부분을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세번이나 이사한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있다. 우선 8도 인심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 아주 길게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이조 전랑(詮郎)을 중심으로 관직을 배치받게 되어 이 제도로부터 관직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어 드디어 당파싸움으로 발전해 간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잘 알려진 당쟁의 과정이 많은 등장인물과 함께 소개되고, 드디어 이중환 자신이 처벌받은 신임사화도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그가 더욱 걱정하는 바는 바로 이런 당쟁이 각 지방의 선비들의 분포까지 영향을 주어 지금 전국의 각지는 바로 그런 당색에 크게 좌우되고 있어서 사대부가 살 곳을 찾아 시골로 간다고 할 경우 이를 무시하고는 들어가 살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당연히 인심을 알아 보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당파가 누구냐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중환은 물론 이렇게 된 현실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임을 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사대부가 살만한 곳을 찾을 경우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

네번째로 거론한 산수에 대해서는 전국의 산세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 가운데 바다, 강, 그리고 계곡 근처의 살만한 곳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와 있다. 풍수지리적인 설명도 곁들여 있어서 도선과 남사고(南師古)가 여러 차례 인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교통이나 풍광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안내가 되어 있다.

19세기까지 한국의 지리적, 경제적, 그리고 자연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여준 저술은 이것 밖에 없었던 것 같다. 바로 이 점이 이중환의 <택리지>를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리학책의 하나로 꼽게 만들었다.

이 책은 일제에 의해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19세기 말 <조선팔역지>(朝鮮八域志)란 이름으로 복간해 내게 했고, 이것을 또 중국에서도 바로 인쇄해 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책의 간행을 거듭했던 것이 드러나 있다.

이중환은 1750년쯤 이 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 책 내용에는 1740년대의 이야기도 들어있으나, 그는 1756년에 죽었다는 그의 집안 족보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이중환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낼 일, 연구해 볼 부분이 아주 많은 것 같다. ④